

“바다 건너 목소리, 정책으로 답하다” 재외동포청, 출범 3주년 맞아 온라인 간담회·정책 포럼 개최

- 온라인 간담회 통해 동포 민원 해결 현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
- 학술포럼 열고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미래 방향 논의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6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과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개최했다.

※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년 6월 5일 출범

○ 이번 행사는 ‘바다 건너 목소리, 정책으로 답하다’를 주제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의 온라인 실시간 소통과 학계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포럼으로 진행됐다.

□ 1부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재외동포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소 추진사항을 공유하고,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등 재외동포 정책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동포사회 민원과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.

○ 참석자들은 △한국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, △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, △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등을 건의했다.

○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민간 서비스 활용 확대 추진 상황과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개선 검토 상황 등을 설명*했다.

*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처 민간으로 확대 추진, 동포단체 지원금 보조율 50%에서 80%로 상향 추진, 공관을 통한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긍정 검토 추진 중

□ 김경협 동포청장은 “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차 민원 및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.”며 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오후에 열린 2부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에서는 한국정치학회, 한국사회학회, 한국정책학회, 재외한인학회 등 각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‘재외동포 정책의 성찰과 전환’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.

○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,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, 동포 인재 유치, 동포 네트워크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○ 또한 현장의 요구를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주신 동포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”며, “이번 3주년 행사는 동포들의 고언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,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첨부 :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행사 개최 사진(별첨). 끝

담당 부서	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심의관	곽삼주	(032-585-3154)
		담당자	사무관	성진주	(032-585-3156)
		담당자	주무관	김규민	(032-585-3162)

